

다각화된 여성어업인 역할 고려한 수산업·어촌 환경 만들어 가야

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문제는 어업 노동력 부족, 어촌 소멸 등 산업적·지역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. 수산업·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여성어업인은 부족한 어업 노동력 공급과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책적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.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녀어업인 간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상당수(85.7%)는 본인의 선택 또는 가업을 잇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지만, 여성어업인의 경우 응답자의 78.4%가 배우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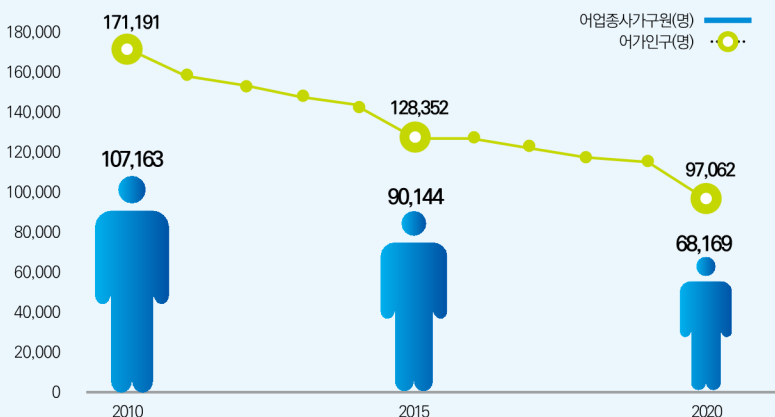
01 국내 어가인구 고령화 및 감소추세 확대, 어업종사가구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

- 어가인구는 2010년 171,191명에서 2020년 97,062명으로 연평균 5.5% 감소
-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, 어가 내 여성인구는 47,326명으로 48.8%를 차지하며 여성어업종사가구원은 30,173명으로 44.3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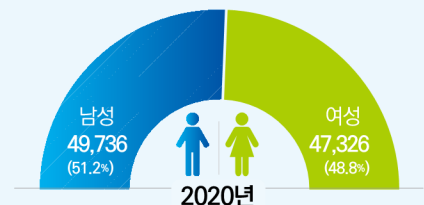
어가인구 및 어업종사가구원 수 변화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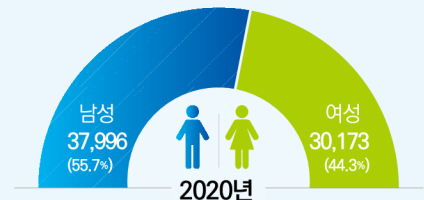
<어가인구 및 어업종사가구원 수 추이>



<성별 어가인구 수 및 비율>



<성별 어업종사가구원 수 및 비율>



02 어촌계 소멸, 인력 부족 등 어촌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 육성 필요성 대두

- 1990년대 이후 어가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어업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어촌사회의 기능과 어가 및 어업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
- 어촌계 소멸, 어업 종사인력 부족 등 어촌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어업인 육성 논의가 본격화됨

여성농업인,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흐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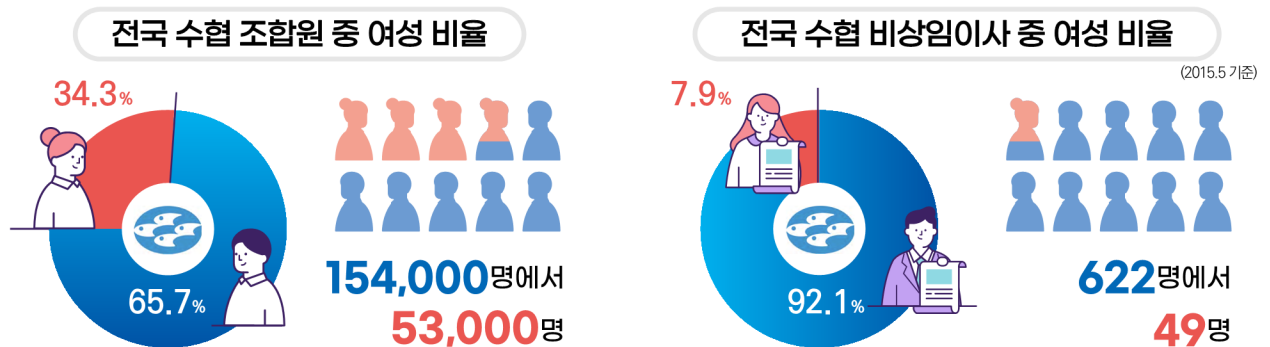
자료 : 홍혜수 외(2021), 「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」, p.53

- 2001년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1차산업 참여 여성에 대한 국내 정책추진이 본격화됨
-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정책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'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기본 계획'으로 볼 수 있음
- *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('22-'26)은 22년 3월에 수립되었음

03 어촌계, 수협 조합원 등 어업-어촌 관련 조직 내 여성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비중 낮아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46조(임원의 정수 및 선출)는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

자료 :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(2021. 1. 1., 법률 제17007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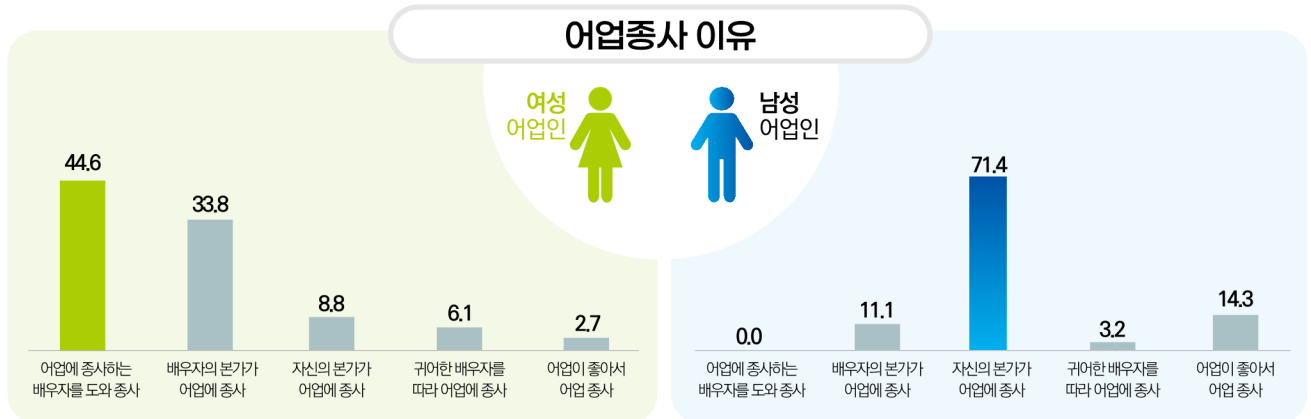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전국 어촌계장 2,309명(2019년 기준) 중 여성 어촌계장은 49명으로 2.1% 수준에 그쳐, 어촌관련 조직 내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04 국제사회 수산부문 성별 직종분리 조명, 여성역할 증진 기반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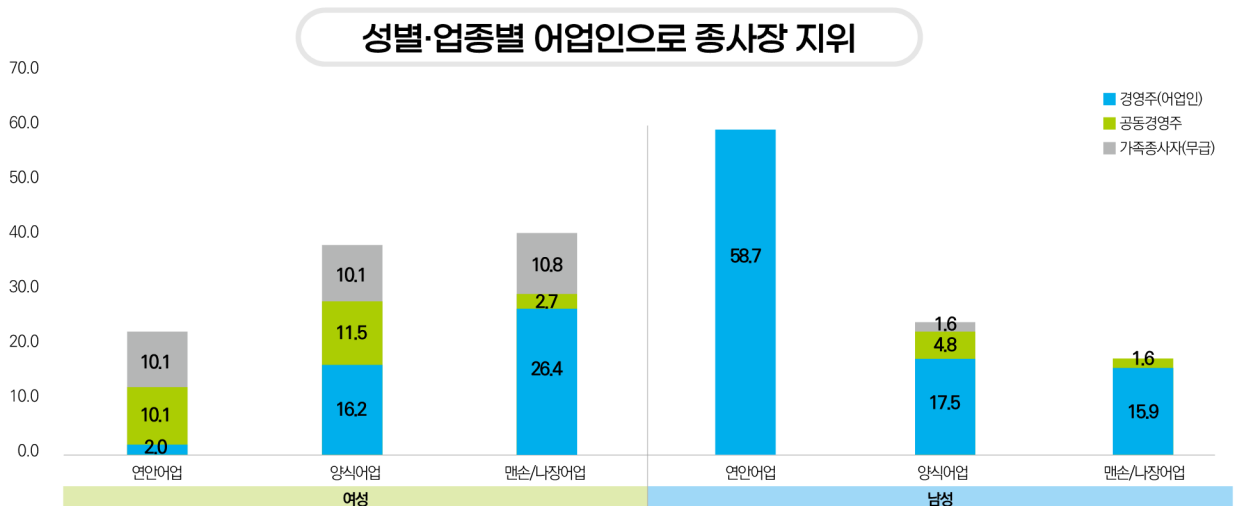
	FAO 유엔식량농업기구	2020년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-2030(FAO 성평등 정책)을 발표함 수산업 내 여성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지적 및 동등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 강조
	UN Women UN 여성기구	세계적으로 수산업에서 여성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주요 활동으로 여겨지는 어업, 양식업 등 생산활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
	WWF 세계자연기금	전 세계 수산업에서 나타나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조명하였는데, 생산 및 금융 활동과 같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업무에서는 여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

05 여성어업인 자신을 보조적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

남성어업인 응답자의 80% 이상은 가업을 잇거나 본인 선택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여성어업인은 주로 배우자를 도와 어업에 종사하거나 배우자 가업을 잇기 위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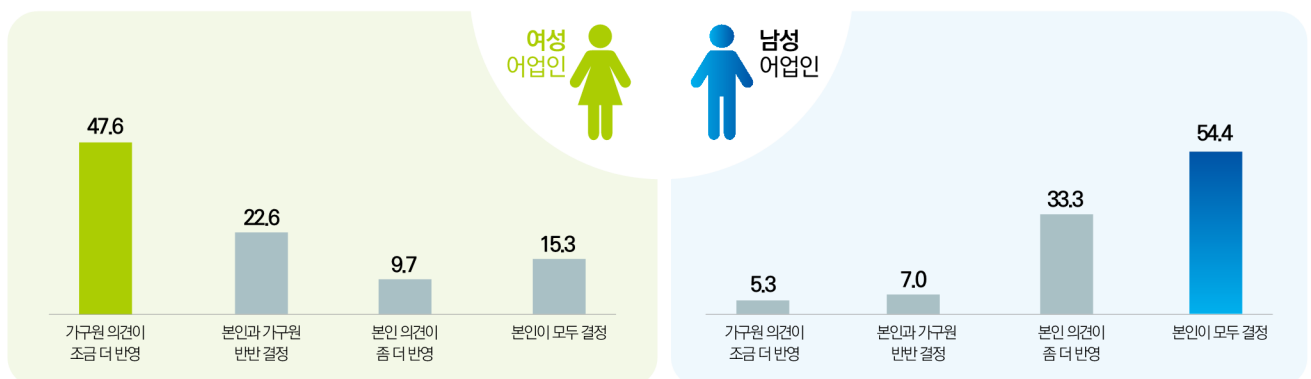
(종사상 지위)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90% 이상이 자신을 어업 경영주로 인식하는 반면, 여성어업인 응답자의 30% 이상은 본인을 경영주가 아닌 무급 가족종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, 특히 어선어업이 주를 이루는 연안어업에서 두드러짐



06 어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여성어업인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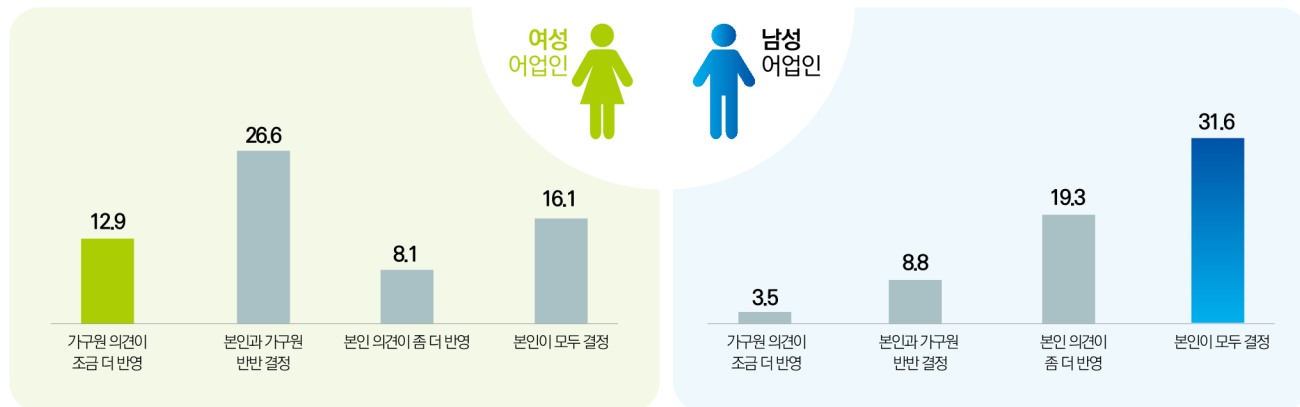
어업 생산

- 남성어업인 응답자의 80% 이상은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다른 가구원의 의사결정 권한보다 크다고 인지한 반면,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는 여성어업인은 25%에 불과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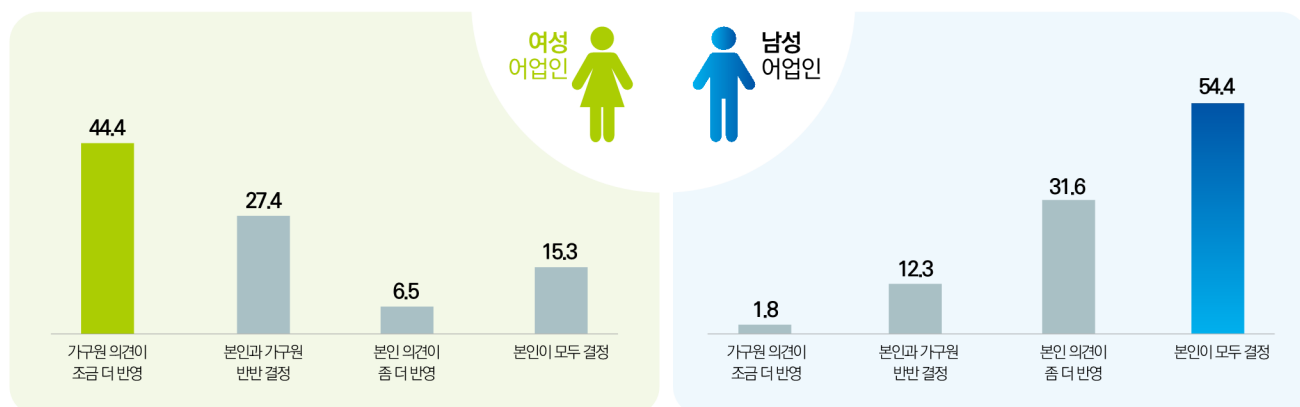
어획물 가공

- 남성어업인은 본인이 모두 결정(32%), 본인 의견이 조금 더 반영(19%) 순으로 응답한 반면, 여성어업인은 본인과 가구원 반반 결정(27%), 본인이 모두 결정(16%) 순으로 응답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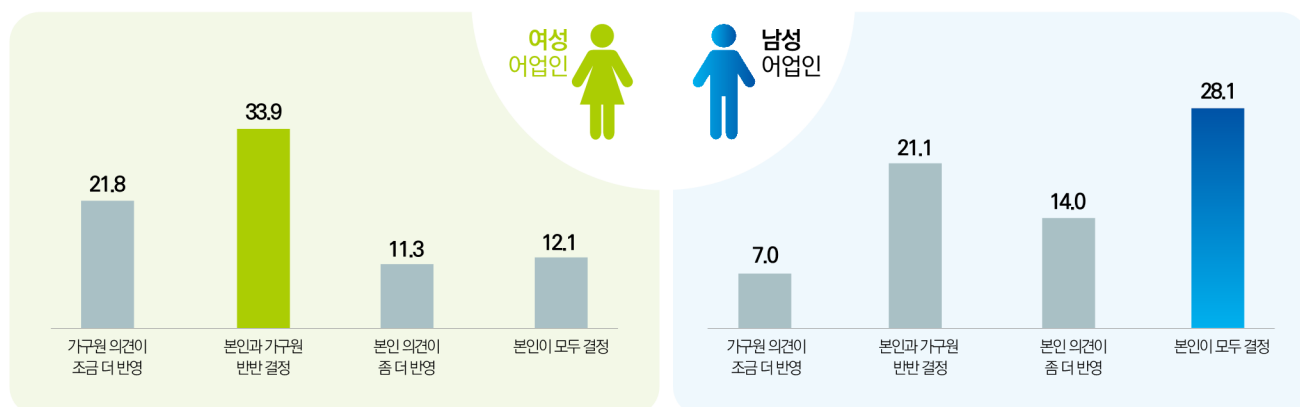
어획물 판매

- 남성어업인의 경우 본인이 모두 결정(54%)한다는 응답이 과반이나, 여성어업인은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(44%)이 주를 이뤄 차이를 보임



소규모지출

- 어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사결정 중 여성어업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인식되는 것은 식료품 구입과 같이 가사노동과 밀접한 일상적 가계지출만이 유일함



07 여성어업인 어가 내 무급노동 전담, 가사활동 등 노동 이중고 노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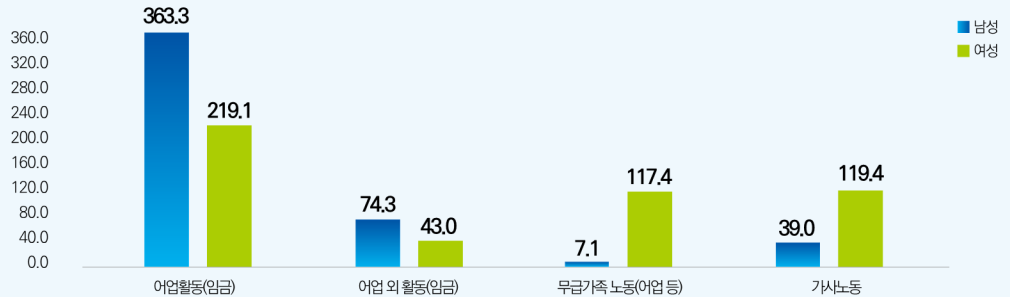
- (유급노동) 남성어업인은 하루 평균 의무시간의 90%인 7.3시간(438분)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반면, 여성어업인은 의무시간의 절반 수준인 4.4시간(262분)만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
- (무급노동) 가사노동, 무급가족 노동, 가구원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어업인의 경우 하루 평균 51분에 불과하지만, 여성어업인은 4.0시간(242분)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음을 시사함

남녀어업인 생활시간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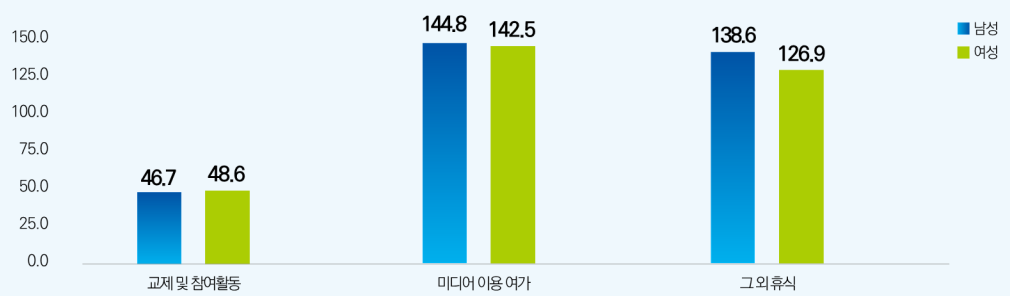
필수시간
활용현황



의무시간
활용현황



여가시간
활용현황



주 : 전체 응답자 211명(여성어업인 148명, 남성어업인 63명)

자료 : 그래프 1, 3 홍혜수 외(2021), 「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」 p.152 / 그래프 2 홍혜수 외(2021), 「여성어업인 노동정책 방향 연구」 p.154

08 여성어업인 양질의 노동환경 마련 등 다방면의 정책적 접근 필요

여성어업인 부문별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

부문별 주요 현안 및 여건	개선방향
지구별 수협이사, 어촌계장 등 여성의사결정권자 및 여성리더의 부족 ·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견 배제, 대표성 미흡	여성어업인 의사를 반영하는 균형잡힌 의사결정구조 구축 지원
배우자, 어가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· 사회적 위치와 권한이 낮은 보조적 역할로 인식	여성어업인 직업적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방안 모색
무급 가족노동, 가사노동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· 노동과 가사의 불명확한 경계, 기여에 대한 가치 평가 미흡	노동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립 및 공감대 형성
어촌의 가부장성, 남성친화적 노동환경으로 여성어업인 참여 제한 · 주도적 역할 수행의 한계점으로 작용	여성 친화형 작업기반 구축 지원

자료 : 홍혜수(2021), 「어촌사회의 여성어업인 지위와 역할」, 제고 방향 참고하여 저자 작성